



Global Asset Talk

홍콩 아가씨, 어디까지 가시나요?

글로벌 자산시장 동향 :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힘 빠진 연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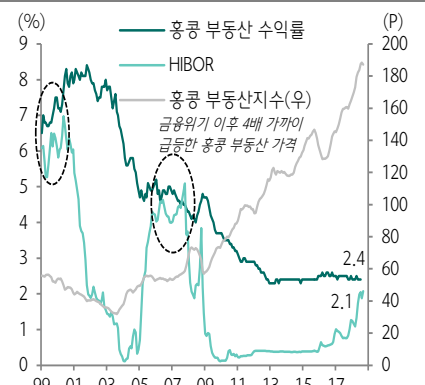
글로벌 자산시장이 불확실성에 의해 지배되는 형국이다. G2 무역분쟁과 유로존 이탈리아 예산안 이슈가 위험자산 심리를 위축시키는 가운데 미국 주택지표 부진, 국제유가 하락 등 이슈가 동시에 글로벌 증시를 좌우하고 있다. 지난주 시장의 관심이 월말에 예정된 G20 정상회담에 집중되며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으로 글로벌 위험자산은 전반적인 반등세를 시도하였다. 다만 주초 미국 주택지표가 크게 하락하고 미 연준 금리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부각되며 상승 탄력은 약화되는 모습이다. 글로벌 경기 둔화 따른 수요 저하 등 요인으로 50달러 초반대로 미끄러진 국제유가도 신흥시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불확실성의 연결고리는 이어져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자산시장 전망 : 홍콩을 금융환경 판단의 바로미터로 삼아야 할 듯

다양한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 선뜻 위험자산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향후 금융시장을 관통할 주요 이슈와 리스크는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인상, G2의 무역갈등 그리고 신흥국의 과잉 민간부채 등을 지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연준의 금리인상은 금융비용 상승을 통해 미국 경제의 late cycle을 가져올 소지가 있고, G2의 무역전쟁은 G20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에도 단기에 타결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공급과잉도 폐그제를 운용하고 있고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편, 높은 민간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등 글로벌 리스크가 중첩된 지역인 홍콩을 바로미터로 삼아 투자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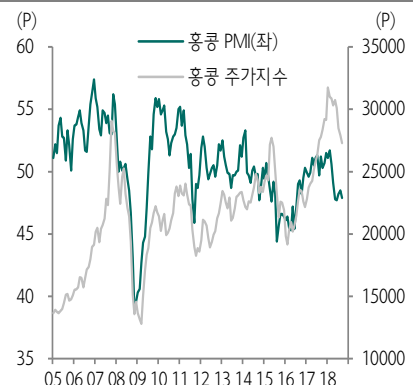
즉 폐그제를 고수하는 한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시 홍콩의 단기금리도 따라 올라가게 될 것이다. 현재 3개월 홍콩은행간 금리가 2.1%인 만큼 부동산 시장의 수익률인 2.4%를 상회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4배 가량 상승하며 버블 위험을 안고 있는 홍콩 부동산시장의 조정압력으로 작용할 것임을 뜻하기도 한다. 결국 홍콩 금융시장 향방은 미국과 중국에서 촉발된 위험의 수위를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확인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 금리인상 부담에 노출된 홍콩 부동산



자료: Thomson Reuters,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50 이하로 떨어진 홍콩 PMI 지수



자료: Thomson Reuters, Bloomberg, 하나금융투자

Asset Allocation

자산배분



Economist/자산배분 소재용
02-3771-7565
jyso30@hanafn.com

RA 김우영
02-3771-7513
wooyoungkim@hanafn.com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